



12면

오늘 봉덕리 봉덕고분 발굴조사 현장 공개

전주매일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음 9월 24일) 제337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한덕수 위원장(국무총리)을 비롯한 박영기 공동위원장(전북대학교 부총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 및 새만금 신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2026년 완공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가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박영기 전북대학교 부총장)가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 신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방안 등 총 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조성된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부진했으나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 개발 계획 발표 후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투자가 실현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2021년 7월 공모를 실시해 같은 해 12월(챌린지테마파크)가 사업행자로 지정되었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통합개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민간이 총 1,443억원을 투자해 관광휴양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공연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유원시설) 및 공공시설(내부도로,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해 2026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관광숙박시설로는 휴양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빌라 15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과 대관람차가 함께 입지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

정부서울청사서 '제31차 새만금위원회'

민간이 총 1443억 투자... 올해 안에 착공기로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대책도 마련

는 휴양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마실길을 재경로 변경, 1호 방조제에 상시·전면 개방한다.

해당 사업부지는 새만금호보관 및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인접하여 시설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1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지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추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신단에 7조8,000억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으며,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7월, 산업부)되는 등 최근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청, 전북도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폐수, 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증설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을 위해 폐수 공동관리를 설치하고 환경부담을 중심으로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또한,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아래 기술지원단을 신설하여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유관기관 합동)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킨다.

세 번째로, 새만금신단 인근 수질측정망 대기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통한 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배출업체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민간위원들은 이차전지 사업장이 큰 규모로 입주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차전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나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내년 상반기 군산전북대병원 착공

전북대병원, 9일 시공자 입찰 공고키로 서해안지역 응급·중증의료 진료여건 개선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시공자 입찰을 9일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인 군산전북대병원 조감도. (사진=전북대병원 제공)

또한, 군산 및 인근 지역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전북도민들의 의료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조달청을 통해 실시한 설계 기술제안입찰 접수를 완료했고, 이달 9일 예정된 입찰공고를 통해 내년 3월에 시공사를 선정할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군산전북대병원 총사업비는 사업 초기 기재부 타당성 용역을 통해 약 1,896억원이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에 따라 약 3,063억원으로 증가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심뇌혈관 질환 및 노인질환 특성화 병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군산 및 서해안지역의 응급·중증 진료여건을 개선해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전북대병원은 군산 서해안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혈관센터와 뇌혈관센터, 뇌신경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신항만 특성화 발전 방안 모색

도, '제2차 새만금 정책포럼' 개최... 예산 정상화 세레머니도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6일 그랜드 힐스 호텔에서 2023년 제2차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새만금 신항만 특성화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사진 3면)

지난 3월 새만금위원회에서 정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물류교통의 핵심기반인 공항·철도·항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고, 특히 국제물류의 관문인 신항만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 흐름을 선도하고자 지난 7월 25일 '제1차 새만금 정책포럼'을 열어 새만금 신항만 특성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새만금 신항만 탄소중립(그린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과 '콜드체인 물류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더욱 심화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 행사에 앞서 개회식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새만금 지역 기업유치의 동력으로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SOC)이 중요하다"며, "최근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사업 예산 정상화를 위해 도민의 관심과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사 참석자 전원에게 함께 하는 새만금 발전과 성장을 기원하고 새만금 예산 정상화의 염원을 담은 세레머니로 개회식을 마무리했다.

본행사인 포럼에서는 바이오코엔(주) 장성인 부사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냉열 에너지 활용사업 분야와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 활용 현황과 액화천연가스(LNG)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전라북도 여건을 바탕으로 새만금 신항만 글로벌 콜드체인 물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미래

식품에너지 융복합 센터, 친환경에너지 스마트 에코팜'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셀렉트UVC 안성동 전무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이 필수이며, 이는 해상운송업계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친환경 수소 운반 매개체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 암모니아'의 물류 및 저장시설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세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정책 운영연구실장,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담당, 양현석 (사)해운항만물류정보협회이사, 정준재 한국식품산업진흥센터 기술지원부장,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참여, 새만금신항만 특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준비와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 등의 현안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2023 완주 가을푸드페스타

2023.11.10(금)~12(일), 3일간 W푸드테라피센터 일원

· 행사 문의: 063.247.7422 · 김장체험 문의: 070.4700.7993

10월 14:00 가을디저트 경연대회 (완주신원리플러스사업단)

11월~12월 김장담기 체험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10월~12월 한국 식문화 대축제 (대한민국한식포럼) - 전시, 체험, 팝업스토어 등

10월~12월 완주보부상마켓 (농식품기업, 신원리엑스그룹) 반려식품 김전센터 (완주 식문화터 흥출동)

농원혁신사업부, 전라북도, 완주군, (사)완주신원리플러스사업단

자세한 내용은 W푸드테라피센터 웹사이트 또는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